

KRIVET Issue Brief

2013

21호

발행인 박영범 | 발행일 2013년 2월 15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 실태

- 2012년에 대학생 중 26.3%, 전문대생은 33.2%가 취업 상태에 있음. 대학생의 경우 2000년에 23.1%에서 2012년 26.3%로, 전문대생은 29.1%에서 33.2%로 증가
- 지난 10여 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
-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직종별로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 등임.
- 지난 10여 년간 대학 및 전문대생의 시간당 임금은 30대 임금근로자의 50%를 하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인적자본 축적에서 재학 중 취업은 양면성을 가짐.

- 높은 대학등록금,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조달이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재학 중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재학 중 취업이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음.
 - 취업 경험에서 근로의 소중함이나 노동의 대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학업에 매진. 또한 전공과 관련된 취업은 학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
 - 반면, 학업에 전념할 시간을 빼앗겨 학교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 졸업이 지연될 수도 있음.
- 이 글에서는 대학 및 전문대생의 재학 중 취업 실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

|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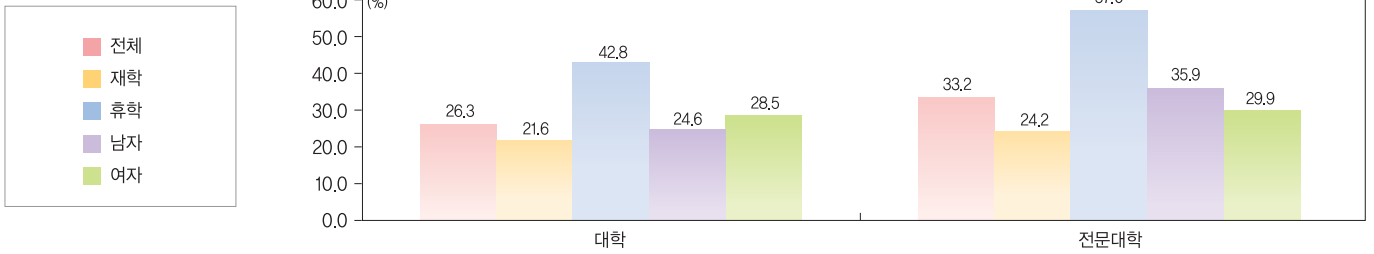
- 분석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와 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자료
- 분석 대상
 - 15~29세 청년층 가운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 자료의 특성 상 휴학 후 군복무 중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됨.

02 대학 및 전문대생의 취업 비중과 근로시간

| 대학생 중 취업자 비중은 1/4, 전문대생은 1/3

- 2012년에 대학생 가운데 26.3%가 취업하고 있고, 전문대생은 33.2%가 취업 상태에 있음.
- 휴학생의 취업자 비중은 재학생보다 2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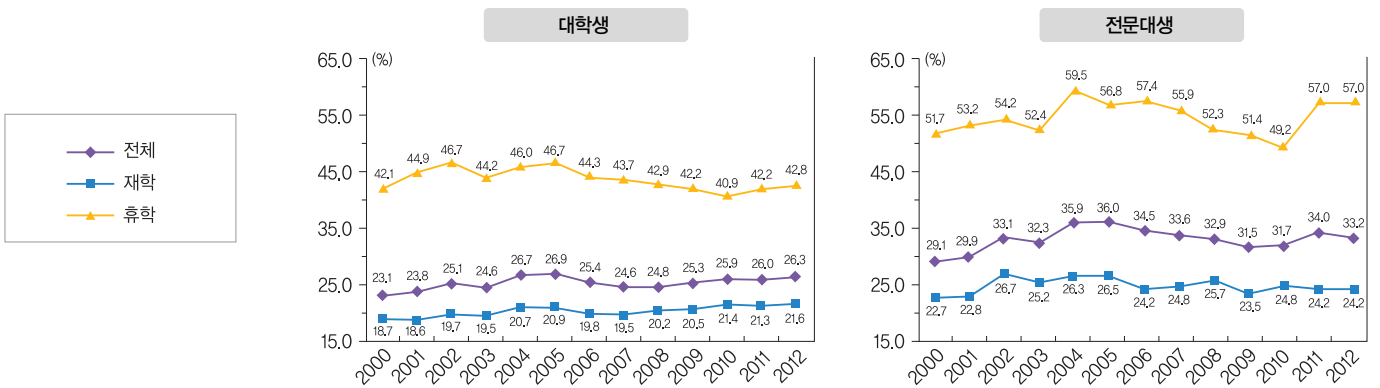
- 대학생의 경우에는 휴학생이 42.8%로 재학생(21.6%)보다 21.2%p 높고, 전문대생은 32.8%p 높음.



[그림 1] 대학 및 전문대생의 취업자 비중(2012년)

지난 10여 년간 대학생과 전문대생의 취업자 비중은 다소 증가

- 대학생의 경우 2000년에 23.1%에서 2012년 26.3%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문대생은 29.1%에서 33.2%로 증가
 - 2005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8~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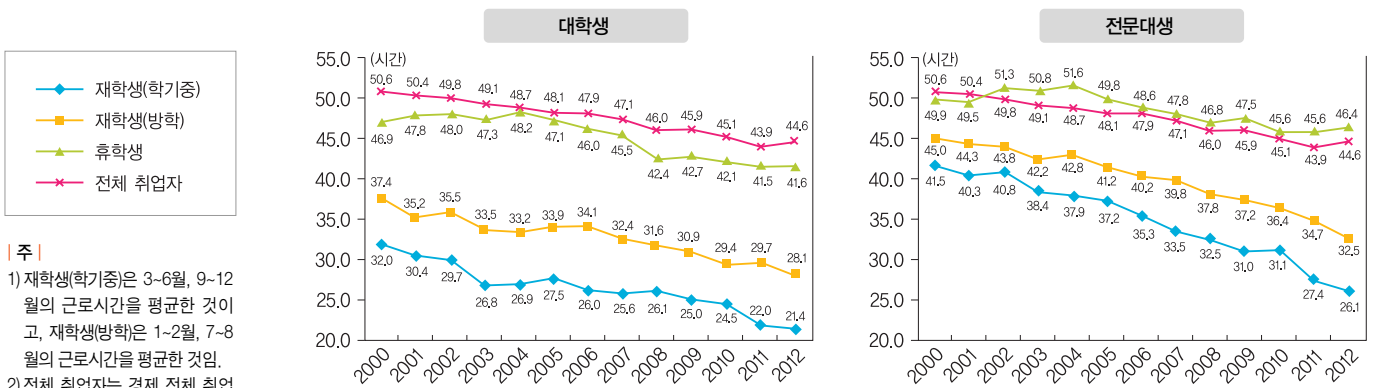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생 및 전문대생의 연도별 취업자 비중 추이 (2000년~2012년)

- 대학생과 전문대생 모두 재학생의 취업자 비중은 방학 기간인 1~2월과 7~8월에 높고, 학기가 진행 중인 3~6월, 9~12월에 낮아짐.
 - 대학생의 경우에는 방학에 5~6%p 정도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전문대생은 10%p 안팎으로 증가

지난 10여 년간 대학생과 전문대생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

- 지난 10여 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감소하였음.



[그림 3] 대학생 및 전문대생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2000년~2012년)

주 |
 1) 재학생(학기중)은 3~6월, 9~12월의 근로시간을 평균한 것이고, 재학생(방학)은 1~2월, 7~8월의 근로시간을 평균한 것임.
 2) 전체 취업자는 경제 전체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임.

- 이러한 특징은 대학/전문대학, 재학생/휴학생, 학기 중/방학에 관계없이 나타남.
-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기 중 주당 근로시간이 2000년 32.0시간에서 2012년 21.4시간으로 감소, 전문대 재학생은 41.5시간에서 26.1시간으로 감소
- 사회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 추세와 함께 시간제 근로의 비중 확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03 취업 일자리의 특성

|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

- 대학생과 전문대생이 취업하는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음.
 - 대학생은 이밖에 교육서비스업이 21.2%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는 개인 과외 또는 학원 강사 취업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30대 취업자들과 비교할 때, 제조업 취업 비중은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취업 비중이 높음.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6% 정도로 30대와 비교하면 취업자 비중이 높은 편임.
- 2000년대 중반과 최근을 비교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 증가와 전문대생의 제조업 비중 감소(8.7%p 감소)가 두드러짐.
 - 숙박 및 음식점업은 30대에서 약간 감소한 데 반해, 대학생은 3.7%p, 전문대생은 9.1%p 증가

〈표 1〉 취업 일자리의 산업 분포

(단위: %)

	2004~2006 ¹⁾				2010~2012 ¹⁾			
	대학	전문대학	30대		대학	전문대학	30대	
			대졸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
제조업	9.8	19.5	15.2	18.2	8.0	10.8	14.9	21.0
도매 및 소매업	19.4	20.9	15.7	18.2	17.5	22.9	12.7	16.7
숙박 및 음식점업	16.4	18.7	2.5	5.4	20.1	27.8	2.4	4.2
교육서비스업	22.2	5.0	15.9	7.4	21.2	5.3	15.9	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9	7.3	1.7	1.8	6.2	6.5	1.8	1.6

주 |
1) 3개년 평균 비중을 제시
2)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만 제시함.

- 대학생과 전문대생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은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사무직 등임.
 -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해보면, 판매, 서비스 종사자의 증가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감소가 확인됨.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서비스업의 높은 비중을 반영

〈표 2〉 취업 일자리의 직종 분포

(단위: %)

	2004~2006 ¹⁾				2010~2012 ¹⁾			
	대학	전문대학	30대		대학	전문대학	30대	
			대졸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1	8.1	40.1	26.2	25.8	8.5	44.0	26.6
사무 종사자	17.0	16.9	31.4	25.0	16.5	10.9	34.5	27.8
서비스 종사자	19.6	23.5	4.8	8.1	20.6	28.6	4.1	6.9
판매 종사자	14.7	14.4	11.8	16.0	18.5	21.6	7.9	12.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9	11.2	2.6	8.0	3.2	6.4	2.4	9.9
단순노무 종사자	13.4	18.3	1.8	4.2	12.7	18.1	1.6	4.1

주 |
1) 3개년 평균 비중을 제시
2) 비중이 높은 주요 직종만 제시함.

| 지난 10여 년간 재학생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30대 임금근로자의 50%를 하회

- 2012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은 대학생 6,351원, 전문대생 5,527원임.
 -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이 긴 전문대 휴학생이 119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 휴학생 109만 3천원으로 나타남.
 - 재학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서로 비슷하지만, 대학생이 79만6천원으로 전문대생(63만4천원)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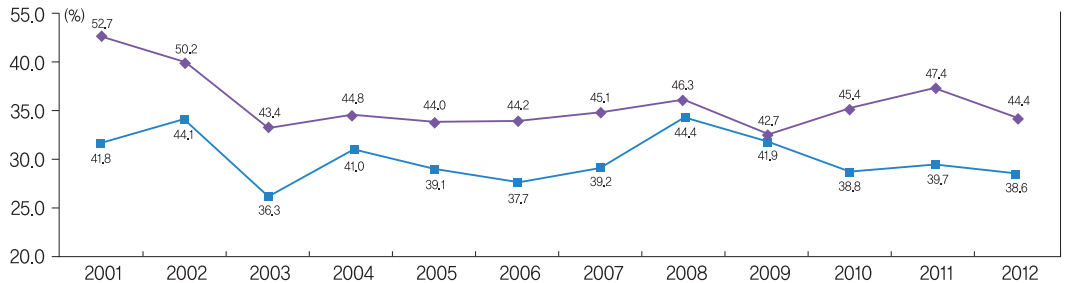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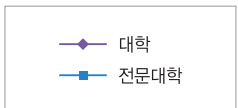
〈표 3〉 취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2년 8월)

(단위: 만원, 시간, 원)

	대학			전문대학		
	월평균 임금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월평균 임금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재학생	79.6	29.6	6,351	63.4	29.9	5,527
휴학생	109.3	40.8		119.0	45.7	

| 주 |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주당 평균근로시간)*4.3

- 지난 10여 년간 3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대졸 및 전문대졸 전체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할 때 재학생의 임금 수준은 50%를 하회함.
 - 이러한 임금 격차는 이들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음을 보여줌.
 - 대학생의 경우 2003년에 40%대로 떨어진 이후 50%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대생은 이 수치가 40% 안팎으로 대학생보다 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2009년에 대학생과 전문대생의 임금 차이는 줄어들었으나,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격차가 확대됨. 이는 30대나 대학생의 임금 상승에 비해 전문대생의 임금이 느리게 상승함을 시사



| 주 |
1) 30대 대졸자 시간당 임금은 3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전문대졸과 대졸 전체의 시간당 평균 임금.
2) 8월 부가조사 자료임.

[그림 4] 대학생 시간당 임금 추이: 30대 대졸자 시간당 임금 대비(2001년~2012년)

04 시사점

- 대학생이나 전문대생의 취업 경험이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현재의 취업이 일부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음.
 - 졸업 후 종사할 산업/직종과 달리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직종으로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등의 비중이 높음.
-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을 할 경우에도 임금수준이 낮아 학업시간을 확보하면서 취업을 병행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임.
-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의 취업 경험이 학자금 마련에 보탬이 되고 졸업 후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